

영광 양파 품종 국산화 작업 순조

지역기업 생산 양파 품종 평가회 국산품종 재배 시 보완점 등 논의

영광군의 양파 품종 국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군서면 남계리 39-11번지 주창환씨 포장에서 우리 기술로 육성·생산된 품종 보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그동안 일본 수입종에 의존해 재배되던 양파를 국산으로 재배능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지난해 ‘씨앗과사람들’의 양파 품종에 대한 보조사업(4,771만원)을 실시했다. 총 109농가 30ha에 ‘당당한’ 양파 외 3품종을 재배해 조생인 ‘젤빠른’은 수확이 이미 완료됐고 중생종 및 중만생종은 현재 수확중

이다. 이번 평가회는 보조사업에 참여한 농가들과 지역 농업 관계자 및 보급사업 종자를 생산한 농가가 참여, 재배 결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토의하고, 보완점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또 양파 과잉 재배로 인한 시세의 하락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참가 농가는 향후 양파 재배 및 유통에 관한 정보도 교환했다.

‘씨앗과사람들’은 영광군에 양파 재배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봉덕영농조합(대표 오흥만 외 7농가)이 4.5ha에서 위탁 재배를 맡아 수매하면서 지역 농가



영광군은 최근 군서면 남계리 39-11번지 주창환씨 포장에서 지역기업 생산 양파 품종 평가회를 개최했다.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매된 양파 종자는 무안, 함평, 해남 및 경남 창녕, 합천 등의 주산지로 국내에 판매되고, 대부분은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올해도 수출 실적이 이미 100만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연말에 무역협회에서 포상하는 100만 달러수출 탑 수상도 눈앞에 다가왔다.

한편 ‘씨앗과사람들’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골든씨드프로젝트에 프로젝트주관책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경남 함안군에서 우리나라 양파 재배 최대 주산지 무안 인근인 영광군으로 지난해 이전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연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양파는 우선 일본 수입종을 대체하는 우수 국산 품종 개발 및 수출용 품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씨앗과사람들은 특히 적색계 품종 개발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수출 목표 9만달러를 초과해 20만달러를 수출한 바 있고, 2018년 수출 목표 17만달러를 훨씬 초과해 134만달러를 기록중이다. /영광=곽용순 기자

내고장 사람들



강인규나주시장은 18일 오전 8시30분 시청소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구충근화순군은 18일 오전 9시 군청소회의실에서 6월 중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최형식담양군은 18일 오전 11시 군청제안상황실에서 열리는 2018년 2분기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한다.

“장흥 ‘예술삼합’에 참여하세요”

연극·미술·무용 예술인과 공동 창작활동

장흥군은 올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소 ‘예술삼합’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예술삼합’은 공동체 예술의 한 형태로 다양한 장르의 전문예술인이 주민들에게 전문기술을 전수하면서 공동 창작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은 연극(뮤지컬), 미술(공예), 무용(움직임) 등으로 구성됐다.

상반기 운영은 오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7주간이며, 하반기는 오는 10월4일부터 11월21일까지 3주간 무료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장흥군민이나 전문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예술삼합’ 참가자는 오는 7월27일 개최되는 제11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무대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예술삼합은 소수에 의한 수동적 예술에서 벗어나 다수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지는 예술의 새로운 시도”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장흥문화예술회관(061-860-0358)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실시

영상편지·라디오교육 등 7개 프로그램 추진

화순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순군은 군민 미디어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군민 대상으로는 ‘울엄마가 보내는 영상편지’, ‘다문화가정 라디오교육’,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가 운영된다. 마을 단위로는 ‘농촌뉴스 만들기’, ‘동네방네 마을라디오’가, 마을 아카이브 사업으로는 ‘우리 동네 미디어역사관’, ‘화순 체험 테마 뮤직비디오에 담다’ 등 총 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울엄마가 보내는 영상편지’는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지를 제작, 도시에서 거주하는 자녀와 SNS로 소통하는 미디어교육이다. 지난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교육이 진행된다.

이주 여성의 삶과 일상을 라디오에 풀어내는 ‘다문화가정 라디오교육’은 오는 8월부터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화순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울엄마가 보내는 영상편지’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민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지를 제작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방송 체험도 운영된다.

또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농촌뉴스 만들기’와 ‘동네방네 마을라디오’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뉴스 영상과 라디오로 제작해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마을 한 곳을 선정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 고령자들의 생애사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마을 회관에 전시하는 ‘우리 동네 미디어역사관’ 등 미디어 아카이브 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화순=서호령 기자

화순 모바일헬스케어 모집

화순군은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건강생활습관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참여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활동량계와 연동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으로 질환자 및 약물복용자를 제외한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중 1가지 이상 보유자다.

화순군은 총 60명을 모집해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해 생활습관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접수는 화순군보건소(061-379-5370)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서호령 기자

담양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교육생 모집...원도심 활성화 기대

담양군이 ‘청년상인창업점포’에서 꿈을 펼칠 ‘푸른돌 청년상인’ 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담양군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돼 청년 창업진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창업점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상인창업점포’는 담양읍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조성 중인 ‘담주다미담 예술구’에 건물 2동, 10-12개 점포 규모로 들어선다. 점포는 창업교육 이수 후 최종 선발된 자가 입점하게 된다.

교육훈련생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갖고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이

나 팀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된다.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직전학기 학점이수자)는 신청 가능하다. 모집은 오는 21일까지다.

교육기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디자인, 컨설팅 등의 창업교육이 이뤄진다. 초기 창업지원금(2,000만원 내외)은 90% 이상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cia.or.kr), 담양군 홈페이지(damyang.go.kr)를 참고하거나 담양군청 지역경제과(061-380-3049)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장동원 기자

영광 친환경벌채 방식 도입

산림생태계 보존·경관 유지 목표

영광군이 자연환경 훼손 예방을 위한 ‘친환경벌채’ 방식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림대상지 벌채 방법은 대면적 입목벌채로 산림훼손, 산사태 우려,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경관 저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영광군은 산

림생태계 보존과 경관 유지를 위해 대면적 입목벌채의 문제점을 보완한 친환경벌채 방식을 도입했다.

영광군은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산 78번지 7ha 면적에 친환경 벌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목재 생산량 조성을 위해 편백 2만여본을 식재했다.

‘친환경 벌채’란 5ha 이상 대면적 벌채 대상지 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한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군산(群山)으로 남기고, 벌채 구역과 벌채 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인 수림대를 남기는 벌채 방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산림의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친환경 벌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나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무안 010-3621-8989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클릭! 고향 소식



영암 삼호지구대 합동순찰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자율방범대 회원 10여 명과 삼호읍 용양리 유흥가 일대를 합동순찰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인 원동마을을 비롯한 유흥가 범죄예방 우려지역 등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가시적인 효과와 제감안전도 상승효과를 노렸다.

김용환 삼호지구대장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완도교육지원청 정보교육

완도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교 유·초·중·고 업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 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과 보안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나주향교 ‘놀기의 신’

문화재청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나주향교 굿은 소나무 학교 ‘놀기의 신’ 프로그램이 최근 나주향교 충효관에서 광주, 나주 지역 초등학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정길용 초청 강사의 지도 아래, 금성산 숲에서 애벌레 놀이, 밤나무 가지로 비눗방울 만들기, 개구리가 되어 뛰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놀이 시간을 가졌다.

/나주=신종기 기자



영광 건치 아동 선발대회

영광군은 최근 보건소에서 영광군 치과의사회가 후원하는 관내 초등학생 대상 ‘건강한 치아 아동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학령기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실시한 이번 행사는 치아우식증과 교합 및 치열 상태, 치아 청결도, 얼굴 정면과 측면 등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구강보건의 날에는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